

통계청은 “나우캐스트”를 통한 속보성 지표의 품질제고 및 서비스 일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언론 보도내용 >

- 2023. 11. 12., 국민일보는 「역점 사업이라더니...통계청 실시간 경제지표 서비스 ‘엉망’」라는 기사에서
 - “ ‘나우캐스트’ 시의성 강화 4억 6000만원 투입, 국회 질의 이후 부랴부랴 수치 업데이트” 라고 보도
 - “이용자 입장에서선 한달 가량 업데이트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” 라고 보도

< 통계청 입장 >

-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나우캐스트 지표는 민간 자료(카드, 모바일 등)를 활용하여 주간, 월간 단위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.
 - 이 중 주간정보는 데이터 입수 후 10영업일(기준일+14일)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, 최근 일부 입수자료의 오류로 인해 재작업이 불가피하여 해당 지표의 서비스 일정이 늦어진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.
 - 이에 따라, 신용카드 이용금액, 평균영업일수, 가맹점 카드매출액의 경우 10/13일자 지표가 11/1일(기준일+19일)로 예정보다 3영업일 늦어진 것입니다.
 - 향후, 품질확보 및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데이터 입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서비스 일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	책임자	과 장	김근식 (042-481-6903)
		담당자	사무관	심규호 (042-481-6904)